여름,

이소영 글·그림

주제	그림책을 읽고 여름을 오감으로 표현하기
권장 차시	4차시
대상 학년	3~4학년
관련 주제어	여름, 여름그림책, 계절, 색감이 예쁜 그림책
교육 과정 연계	국어 [4국05-01] 시각이나 청각 등 감각적 표현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미술 [4미01-02]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작성	창원 전안초등학교 박정윤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봄이 지나면 자연스레 찾아오는 여름, 무더위로 대변되는 여름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무겁고 지치게 한다. 하지만 여름 열기에 누그러진 의식의 반면은 오히려 느긋함의 숨을 트게 하지 않을까? 작가는 더위에 지쳐가던 순간에 시선을 바꿔 여름을 다시 바라보게 이끈다. 그러자 여름의 더위는 앞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는 의미로 다가오고, 쉴 그늘을 만들기 위해 여름 나무가 무성했음을 알게 된다.

이처럼 더위에 대한 생각이 열리자, 여름 바다의 쨍쨍한 열기는 온몸으로 들어와 붉은 색의 팔레트가 되고, 내리치는 세찬 빗줄기는 선으로 살아나 더위에 매몰되었던 기억을 아름답게 그려나간다. 여름은 달게 익어가는 복숭아 위에 그 마지막 열기를 쏟으며, 우리 곁에 달콤함으로 남겨진다.

■ 학습 목표

- 여름을 오감으로 느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여름을 탐색하고 그 느낌과 생각을 여름 캐릭터로 나타낼 수 있다.
- 여름을 떠올리며 연상되는 단어를 활용하여 놀이를 할 수 있다.

■ 수업 준비

책을 펼치면 온몸으로 여름을 느낄 수 있다. 푹푹 찌는 더위와 갑자기 쏟아지던 장대비의 시원함, 잘 익은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물었던 달콤한 기억이 떠오른다. 뜨거운 햇볕과 열기를 채도가 높은 붉은색으로 표현해 후끈하게 더운 느낌을 잘 살렸다. 붉은색 외에도 초록색과 파란색 등 다채로운 색을 적절히 사용한 색감의 조화가 아름답다.

그림책을 읽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름'을 표현할 수 있다. 먼저 여름을 오감으로 표현한다. 여름을 떠올릴 때 느껴지는 맛과 냄새, 색깔이나 모양, 소리, 감촉을 이야기하고 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름에 어울리는 캐릭터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입체로 표현해도 좋다. 여름에서 연상되는 것들을 떠올려 단어 게임을 한다면 학생들의 창의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수업 준비물 여름 사진, 활동지, 비밀상자, 캐릭터 표현 재료 등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나의 여름 사진전 내용 예상하기	1차시
읽는 중	그림 읽기, 내용 확인하기 인상 깊은 장면이나 구절 이야기 나누기	
읽은 후	여름, 오감으로 표현하기 여름, 캐릭터 표현하기 여름, 줄줄이 단어 게임하기	3차시

읽기 전

1. 나의 여름 사진전

■ 여름을 떠올리며 인상적인 장면이나 기억에 남는 일을 이야기해봅시다.

예: 가족과 수박 화채를 만들어 먹었어요.
친구들과 워터파크에서 물놀이하며 재미있게 놀았어요.
매미가 아파트 베란다 방충망에 붙어서 시끄럽게 울었던 게 기억나요.

■ 나의 여름 사진을 소개해 봅시다.

예: 가족들과 계곡에 놀러 갔는데 물이 차가워서 깜짝 놀랐어요.
해수욕장에서 모래놀이와 파도타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제주도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했는데 작은 물고기를 많이 봤어요.
지난 여름에 가족여행을 하며 팥빙수와 과일빙수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Tip. 미리 사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내 모습이 담긴 사진을 준비하기 어렵다면 내가 소개하고 싶은 나의 여름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가 담긴 사진을 준비해도 된다. 예를 들어 워터파크에서 미끄럼틀을 탔던 짜릿한 경험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때 찍은 사진이 없다면 워터파크 이미지 사진을 준비해 소개할 수도 있다.

2. 내용 예상하기

■ 앞표지를 보여주며 책 제목과 작가 이름, 출판사를 읽어줍니다.

■ 앞표지와 뒤표지를 펼친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떠오르는 질문을 해봅시다.

예: 책 제목 '여름' 뒤에 왜 쉼표가 있을까?

누워 있는 거인은 누구일까? 거인은 왜 빨간색일까?

하늘을 날고 있는 빨간 생명체, 캐릭터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왜 다들 즐거워 보일까?

Tip. 이 책은 그림책 속 한 장면을 앞표지, 책등, 뒤표지에 걸쳐 펼쳐 그렸다. 책을 펼쳐 앞뒤 표지 그림을 한눈에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 어떤 이야기일지 예상해봅시다.

예: 여름에 일어난 일을 표현한 것 같아요.

누워있는 거인이 가을이 되면 깨어날 것 같아요.

책장을 넘기면 '여름,' 이라는 글자 뒤에 단어가 하나씩 늘어 갈 것 같아요.

여름을 색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여름이 덥고 뜨거워서 붉은색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인에게 여름에 무엇을 하며 보냈는지 알려주고 나중에 거인이 깨어나 함께 놀 것 같아요.

여름에 거인이 숲에 누워 쉬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인을 산으로 착각해서 거인 몸 위로 소풍을 가거나 캠핑을 하는 내용일 것 같다.

읽는 중

1. 선생님이 그림책 읽어주기

■ 선생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림이 보여주는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 글밥이 많지 않은 책이지만 글이 표현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그림이 보여준다. 그림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천천히 책장을 넘긴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색으로 표현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 이 책은 색감이 풍부하고 채도가 높은 색을 많이 써서 직접 보여주기를 권한다. 실물화상기를 통해 확대해 보여주면 빛의 노출 정도에 따라 그림책의 색감을 충분히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실물 책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면 좋다.

2. 그림 읽기, 내용 확인하기

■ 책 곳곳에 보이는 빨갛게 표현한 생명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예: 땀 같아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더위 귀신 같아요.

여름의 열기를 나타낸 것 같아요.

■ 그림책에 많이 쓰인 색은 무슨 색인가요? 왜 그 색을 많이 사용했을까요?

예: 빨간색이 많이 보여요. 여름은 덥고 햇볕이 뜨거우니까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빨간색이요. '여름' 하면 수박이 생각나는데, 수박도 빨개요.

앞부분에는 빨간색이 많지만 뒤로 갈수록 초록색과 파란색도 많이 보여요. 한여름은 빨간색으로 표현했고 더위가 점차 물러날 때는 다른 색을 많이 쓴 것 같아요.

■ 글 부분을 가리고 그림만 살펴보며 작가는 여름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했는지 예상해 봅시다.

예: 여름을 녹고 있는 빨간 아이스크림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여름을 몸에 들러붙은 빨간 도마뱀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 추가 활동으로 내가 느낀 여름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활동도 할 수 있다.

예: 여름은 슬라임 –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 끈적이는 느낌이 슬라임의 끈적임과 비슷해서

여름은 마스크 끼고 달리기 – 너무 더워서 숨이 막히는 것이 마스크 끼고 달리기하는 기분 같아서

여름은 고양이 – 너무 더워서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축 늘어져 잠자는 고양이가 떠올라서

■ 마지막 장면 속 '달다, 여름'은 무슨 뜻일까요?

예: 뜨거운 햇볕 덕분에 복숭아가 잘 익어서 '달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땀 흘리고 난 다음에 복숭아를 먹으면 더 달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잘 익은 복숭아에서 여름의 맛을 느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3. 인상 깊은 장면이나 구절 이야기 나누기

■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을 고르고, 그 장면을 고른 까닭을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예: 마지막 장면에 잘 익은 복숭아를 먹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저도 복숭아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아이가 복숭아를 먹는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결국엔 더운 여름이 복숭아를 주렁주렁 열리게 도와줬고 또 달콤하게 키워줬기 때문이에요.

나무 그늘에서 사람들이 쉬고 있는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초록색이 많아서 꼭 숲에 와 있는 느낌이라 편안하고 사람들이 즐거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 맞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시원하게 비 내리는 모습을 파란색 선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저도 비 맞으며 논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재미있었어요. 놀 때는 몰랐는데, 놀고 집에 오니 너무 추웠어요.

휴대용 선풍기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머리카락 때문에 가려진 사람들의 표정을 상상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저도 여름 내내 손선풍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읽은 후

1. 여름, 오감으로 표현하기

■ 〈시각〉 여름에 어울리는 색은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예: 초록색 –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무성하고 들과 산도 초록색이기 때문이에요.

파란색 – 여름에 바다로 계곡으로 워터파크로 물놀이를 자주 가는데 물놀이가 파란색과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 〈후각〉 여름은 어떤 냄새로 기억에 남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땀냄새 – 여름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모기약과 물파스 – 여름에 모기가 많아서 모기약을 뿌리고, 모기에 물렸을 때 물파스를 발랐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 〈미각〉 여름의 맛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느끼나요?

예: 수박맛 – 여름에 달콤하고 아삭한 수박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팥빙수맛 – 집에서 팥빙수 재료를 사서 가족들과 팥빙수를 자주 만들어 먹은 기억이 나요.

■ 〈청각〉 여름은 어떤 소리로 기억에 남나요? 흉내내는 말로 표현해 볼까요?

예: 파도 소리 – 쏴쏴

풀벌레 소리 – 찌르르 찌르르

매미 소리 – 맴맴

선풍기 소리 – 이이이잉

■ 〈청각〉 선생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인지 예상해 봅시다.

* 인터넷에서 여름의 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찾아 감상하고 어떤 소리인지 맞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또는 각자 휴대 전화로 여름의 주변 소리를 직접 녹음해 와서 어떤 소리인지 맞히는 놀이를 해도 좋겠다.

■ 〈촉각〉 여름은 어떤 감촉으로 기억에 남나요? 흉내내는 말을 넣어 표현해 볼까요?

예: 아이스크림이 손에 묻어서 끈적끈적했어요.

가벼운 여름 이불의 까슬까슬한 감촉이 기억에 남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궜는데 발이 시려웠고 순간 오들오들 떨렸어요.

팔과 목을 만졌는데, 쩍쩍 달라붙는 땀이 있어 찝찝했어요.

■ 〈촉각〉 비밀 상자 안에 손을 넣어 상자 속 물체를 만져보고 무엇인지 알아 맞혀 봅시다. 이 물체는 여름에 잘 볼 수 있는 물체입니다.

* 여름에 잘 볼 수 있는 물체와 비밀 상자를 준비한다. 상자의 앞면은 보이고 나머지 면은 보이지 않게 만든 비밀상자에 여름 물건을 넣어 만져보고 무슨 물건인지 알아맞히는 놀이를 한다.

■ 여름을 몸으로 표현해 봅시다. 오감으로 표현한 여름을 몸을 움직여 표현해 봅시다.

*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등 여름을 느낄 수 있는 배경음악을 틀어줄 수도 있다.

■ 다 함께 여름 노래를 부르며 어울리는 몸짓과 율동을 자유롭게 해 봅시다.

예: '여름 냇가', '여름날', '고기잡이' 노래

2. 여름, 캐릭터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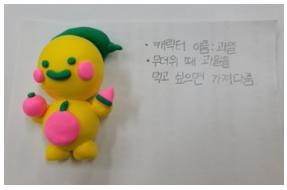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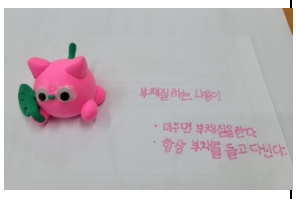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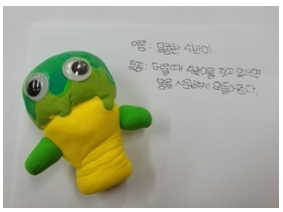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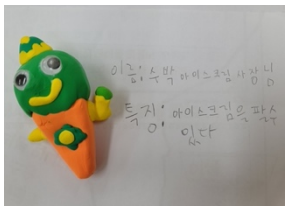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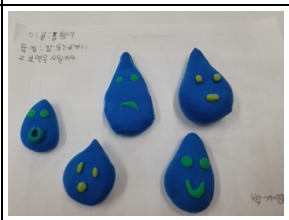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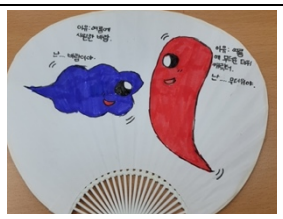
■ 여름을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를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여름의 어떤 모습을 반영하여 그렸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캐릭터의 이름도 지어 봅시다.

Tip. 부채 만들기에 여름 캐릭터를 넣어 표현할 수도 있다.

■ 여름을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를 입체로 표현해 봅시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표현할지 구상해 봅시다.

예: 색점토를 활용하여 여름 캐릭터를 만들기

Tip. 여름 캐릭터 표현은 그림 또는 입체로 표현할 수도 있다. 입체로 표현할 때 재료도 학급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할 수도 있다.

캐릭터				
이름	과일	부채질하는 냐옹이	달콤한 수박이	수박아이스크림 사장님
특징	무더위 때 과일을 먹고 싶으면 가져다 준다.	더우면 부채질을 한다. 항상 부채를 들고 다닌다.	더울 때 수박이를 갖고 있으면 몸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아이스크림을 팔 수 있다.
캐릭터				

이름	더위몬	물빵이	바람 / 무더위	빨빨이
특징	더위를 만들고 가을에는 하늘로 올라간다. 가끔은 더위를 흡수해 준다.	잘 웃는 표정을 보면 시원하다	여름에 시원한 바람 / 여름에 무더운 더위	항상 빨간색 옷을 입고 사람들이 더위를 타지 않게 해준다.

3. 여름, 줄줄이 단어 게임하기

■ '여름'에서 연상되는 단어를 활용한 게임을 해봅시다.

Tip. 아래에 제시된 단어 연상 놀이는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다.

■ 마음이 통통

① 모둠 또는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시된 주제에서 연상되는 단어를 다섯 가지 적는다. (단어를 적는 칸을 늘려 많이 쓰게 할 수도 있다.)

③ 참가자는 돌아가며 자신이 쓴 단어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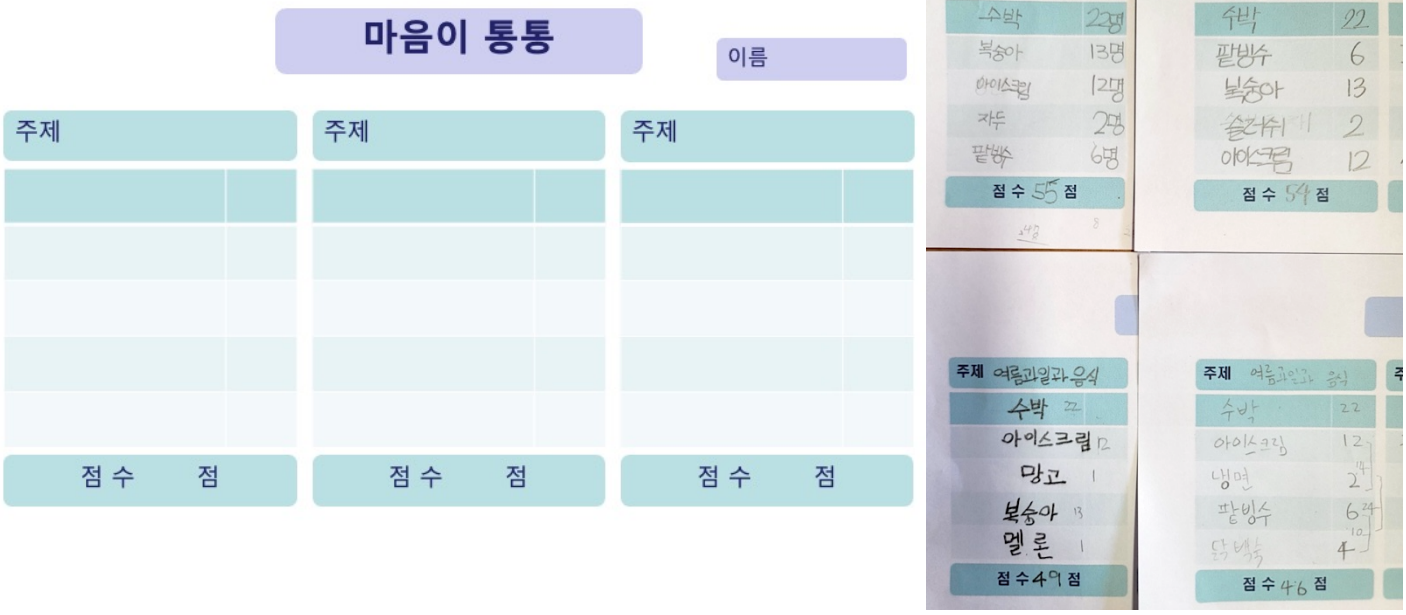
④ 같은 단어를 쓴 친구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며 손을 든다. 손 든 친구의 수를 헤아려 수를 말해주면 모두 그 수를 단어 옆에 적어 둔다. 같은 단어를 몇 명의 참가자가 썼느냐에 따라 단어의 점수가 달라진다.

⑤ 단어를 말하는 참가자 혼자 그 단어를 썼다면 1점을 얻는다.

⑥ 남은 단어가 없을 때까지 돌아가며 말한다.

⑦ 가장 많은 점수를 얻는 참가자가 '공감왕'이 되고 가장 적은 점수를 얻는 참가가는 '기발왕'으로 불러준다.

예: 주제를 '여름'으로 할 때, 연상되는 다섯 단어를 '물놀이', '수박', '복숭아', '땀', '에어컨'으로 쓴다. 참가자가가 '물놀이'를 말했을 때 '물놀이'를 쓴 학생들이 손을 든다. 손을 든 학생의 수가 점수가 된다. 즉, 많은 참가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들을 쓰면 점수를 받기에 유리하다. 주제를 '여름의 과일', '여름의 색', '여름의 장소' 등 여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한다면 '여름'에서 연상되는 다양한 내용들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이 놀이는 '너도? 나도!' 공감 게임으로 알려져 있다.

■ 달리는 ㄱㄴㄷ

① 반 전체를 크게 두 모둠으로 나눠서 한 줄로 선다.

② 칠판 가운데 자음 ㄱ부터 ㅎ까지 세로로 쓴다.

③ 주제를 제시한다. 각 모둠은 주제에서 연상되는 ㄱ부터 ㅎ을 초성으로 하는 단어를 생각한다.

④ 첫 번째 주가가 뛰어가 ㄱ에 해당하는 단어를 쓴다.

⑤ 모둠의 친구들이 상태팀에 들리지 않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알려준다.

⑥ 다른 모둠이 먼저 쓴 단어는 쓰지 못한다.

⑦ 먼저 ㄱ부터 ㅎ까지 주제에 알맞게 단어를 다 쓴 모둠이 이긴다.

* 연상되는 단어를 생각하고 모둠원에게 공유하는 과정에서 협동심 및 의사소통역량을 기를 수 있다.

■ 쁘띠 바크

① 3~4명이 한 모둠이 되어 모둠 활동지 한 장을 받는다.

② 선생님이 자음을 하나 제시하면, 그 자음을 초성으로 시작하는 낱말을 주제별로 하나씩 적는다.

③ 한 줄을 다 채우면 완성된다. '완성'을 먼저 외치는 모둠에게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④ 먼저 완성한 모둠이 나오면 나머지 모둠은 쓰기를 멈춘다.

⑤ 완성한 팀이 주제별로 순서대로 하나씩 낱말을 말한다.

⑥ 답을 부른 모둠이 쓴 내용이 다른 모둠에 없다면 단어 하나당 1점을 얻는다. 이때, 부른 답이 다른 모둠에 있다면 답을 부른 모둠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같은 답을 쓴 모둠이 1점을 얻는다.

⑦ 답을 부르는 모둠의 내용 중 틀린 내용이 있다면 모든 점수는 0점이 되며 다른 모둠에게 부를 기회가 넘어간다. 다시 칸을 빠르게 채운 모둠 또는 가위바위보로 정하기로 할 수 있다.

⑧ 모든 놀이 진행 후 총점이 가장 높은 모둠이 이긴다.

다른 방법

❻ 나머지 모둠은 먼저 완성한 모둠과 같은 낱말이 나온 개수만큼 점수를 얻는다.

❼ 가장 먼저 완성한 모둠은 7개를 모두 알맞게 말했을 때 7점을 얻게 된다.

쁘띠 바크 Petit Bac

모둠	

회	주제어 / 자음	봄	여름	가을	겨울	동물	식물	음식	점수
1	ㄴ								
2	ㄷ								
3	ㅁ								
4	ㅂ								
5	ㅇ								
6	ㅈ								
7	ㅎ								

* 쁘띠바크(Petit Bac)는 프랑스의 국민 게임으로 불리며 프랑스식 '작은 수능' 정도의 뜻으로 풀이된다. 제시된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7가지 주제에 알맞게 쓰고 말해야 하므로 순발력과 어휘력을 요구한다. 학년에 따라 점수를 얻는 방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변경해서 놀이할 수도 있다.